

# 慶州地域 初期豎穴式石槨墓의 檢討

曹 秀 鉉 \*

## 목 차

- I. 머리말
- II. 豎穴式石槨墓의 起源 研究 略史
- III. 檢討對象 遺蹟
- IV. 屬性分析과 段階設定
- V. 釜山·金海地域과의 關聯性
- VI. 맺음말

## < 요 약 >

이 글에서는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초기수혈식석곽묘의 축조집단유형, 신라토기의 부장시기, 구조적 특징, 발생 등에 대하여 낙동강하류역인 부산·김해지역의 초기수혈식석곽묘와 비교·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지역 모두 초기수혈식석곽묘는 지배층집단보다 하위계층의 집단에서 먼저 채용되며, 이와는 반대로 신라토기의 부장은 지배층집단에서 먼저 부장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 중 가장 이른 시기로 파악되는 하삼정고분군의 석곽묘 9호는 낙동강하류역인 부산·김해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대 목곽묘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두 지역을 비교·검토한 결과, 평면형태, 규모 등에서 약간의 상이점이 관찰된다. 따라서 경주지역의 초기수혈식석곽묘는 낙동강하류역에서 전파되어진 것보다는 내세사상의 관념이 증가하여 묘제에 반영되어진 결과로서, 붕괴가 쉬운 목재보다는 견고한 석재로의 인식전환과 자체적인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수혈식석곽묘, 경주지역, 신라토기, 낙동강, 집단유형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 조사연구단 연구원

## I. 머리말

삼국시대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묘제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積石木槨墓와 嶺南全域에 걸쳐 널리 조성된 豎穴式石槨墓를 들 수 있다. 이 중 가야의 主墓制로 채택된 수혈식석곽묘는 伽倻聯盟體의 실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考古資料로 활용되었다. 여기에 비해 적석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로 이원화된 신라의 고분문화는 주로 지배층의 묘제인 적석목곽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졌다. 그러나 최근, 경주지역의 유적조사량이 급증함에 따라 경주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가야의 주요제로 인식되어온 수혈식석곽묘가 다량 확인되어져 여기에 관한 연구<sup>1)</sup>가 일부 이루어졌다. 하지만 豎穴式石槨墓의 발생과 확산, 가야지역과의 關聯性 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가야지역의 수혈식석곽묘와 같은 脈絡에서 그 構造와 變遷相이 이해되어진 점과 지배층의 墓制研究에만 너무 치중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해결방안으로서 우선 신라의 왕도인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수혈식석곽묘<sup>2)</sup>의 발생과 構造的인 樣相에 관하여 살펴보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洛東江下流域인 釜山·金海地域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初期豎穴式石槨墓 築造集團類型과 신라토기의 부장시기 등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한다.

## II. 豎穴式石槨墓의 起源 研究 略史

지금까지 수혈식석곽묘에 대한 연구는 先學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장 큰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기원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있다. 수혈식석곽묘의 기원에 대한 설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한가지는 청동기시대 석관묘의 계승론이며, 또 한가지는 전대 목곽묘의 발전에 의한 자체발생론이다.

- 
- 1) 張正男, 2000a, 「慶州地域 石槨墓 樣相과 性格研究」 『慶州文化6』 慶州文化院.  
-----, 2000b, 「陝川과 慶州地域 石槨墓 樣相研究」 『韓國古代史와 考古學-학산 김정학박사 기념논총』  
曹秀鉉, 2003, 「慶州地域 豎穴式石槨墓에 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 '初期豎穴式石槨墓'는 경주 황남동 109호 3·4곽의 5세기 전반전엽의 연대론에 입각한 安在晔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4세기 후엽~5세기전엽에 걸쳐 조성된 수혈식석곽묘로서 그 분포는 대부분 釜山·金海의 낙동강하류역에 한정된다. 그것에 비해 慶州地域은 상가지역보다 시기적으로 약간 늦기 때문에 氏의 연대관에 입각하여 4세기 후반 후엽~5세기 중반 후엽에 걸쳐 경주주변지역에 조성된 수혈식석곽묘를 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安在晔, 1990, 『東來 福泉洞古墳群Ⅱ發掘調査報告書, Ⅲ, 考察 - 棺·槨에 대하여-』 釜山大學校博物館.

먼저 전자를 보면, 金元龍은 수혈식석곽묘는 유사이전의 상식석관에서 그 계통을 구하고, 橫穴式石室은 北으로부터 새로 전래된 지방적특수식에서 그 계통을 구하였다.<sup>3)</sup> 金世基는 I(石箱墳) II(石槨墳) III(石室墳)형식의 변화와 墓形態에 따른 결과로 그 원류는 靑銅器時代 石棺墓 및 石槨墓에서 찾았다.<sup>4)</sup> 姜賢淑은 金海 禮安里古墳群의 축조방법과 재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하부구조에 그 계통을 관련짓고 있다. 이것은 선사시대 석곽묘가 1매 또는 수매의 판석으로 축조되어 金海 禮安里古墳群의 소형석곽묘와 형태상으로 유사한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sup>5)</sup> 鄭相石은 晉州 雨水里 伽倻墓의 축조방법을 검토하면서 小伽倻영역에서 주로 세우기기법으로 축조된 石棺系石槨墓와 선사시대 석관묘가 축조기법상 유사함을 지적하였다.<sup>6)</sup>

한편, 후자인 목곽묘의 자체발생설을 보면, 申敬澈은 金海 七山洞古墳群과 福泉洞古墳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石築技術만은 외부에서 유입되었으나 그 형태는 목곽묘에서 발전하여 석곽묘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으며 4세기 중·후엽 ~ 5세기 전엽의 豎穴式石槨墓를 '古式豎穴式石槨墓'로 명명하였다.<sup>7)</sup> 安在皓는 洛東江下流域의 華明洞, 七山洞, 福泉洞古墳群의 초기수혈식석곽묘의 평면형태와 구조를 근거로 목곽묘에서 발전한 묘제의 형태로 파악하였다. 또한 棺·槨의 정의를 재검토하여 기존의 '豎穴式石室墳'을 '豎穴式石槨墓'로 정의하고 초기에 출현하는 수혈식석곽묘를 '初期豎穴式石槨墓'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昌原 三東洞과 金海 禮安里古墳群 Ib기의 석관계석곽묘를 초기수혈식석곽묘의 祖型보다는 청동기시대 석관묘의 衰退期의 것으로 간주하고, 化明洞 5호분을 초기수혈식석곽묘의 定型으로 보았다.<sup>8)</sup> 崔秉鉉은 福泉洞古墳群의 主·副槨式으로 이루어진 초기수혈식석곽묘의 구조를 통해 전대 목곽묘와의 관련성을 제기하였다. 그 중에서 목곽과 묘광벽 사이의 뒷채움 재료가 점토에서 할석으로 전환되는데 주목하였다. 또한 평면형태와 구조에서도 異穴의 石槨+木槨의 장방형에서 점차 시기가 늦어질수록 同穴의 석곽으로 축조된 주·부곽식 세장방형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평면형태의 변화는 주로 慶山과 星州 등의 낙동강동안이 장방형, 高靈 등의 낙동강서안은 세장방형의 형태로 변화한다고 보고, 장방형의 형태변화는 경주지역 적석목곽분의 영향과도 깊은 연관

3)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제3판.

4) 金世基, 1985, 「豎穴式墓制의 研究-伽倻地域을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17집』 한국고고학회.

5) 姜賢淑, 1989, 「伽倻石槨墓 研究試論」 『韓國考古學報23집』 한국고고학회.

6) 鄭相石, 1999, 『晉州 雨水里 小伽倻墓群 - 附錄1. 豎穴式石槨墓의 構築工程-』 慶南考古學研究所.

7) 申敬澈, 1985, 『金海 禮安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IV 考察』 釜山大學校博物館.

----, 1989, 『金海 七山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IV 結言』 慶星大學校博物館.

8) 安在皓, 1990, 「앞글」(주2)

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sup>9)</sup> 洪潛植은 수혈식석곽묘의 축조방법과 구조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전대의 무덤형태인 목곽묘에서 그 기원을 구하였다. 특히 東來 福泉洞古墳群과 金海 七山洞古墳群의 초기수혈식석곽묘의 구조적 형태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무덤의 붕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장주체부의 재료가 목곽에서 석곽으로 대체되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0)</sup> 張正男은 경주지역의 석곽묘를 연구하면서 명확하게 그 발생에 관하여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기원설보다는 낙동강하류역에서 도질토기가 전해진 시기 즈음에 부산·김해지역으로부터 경주 시외곽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았다.<sup>11)</sup> 필자는 경주에 인접한 蔚山의 下三政古墳群을 경주권역으로 파악하고, 석곽묘 9호를 경주지역 및 신라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석곽묘 9호의 내부구조상 주공간과 부장공간의 분리 및 너비의 차이와 벽석의 형태 등에서 전대 목곽묘적인 요소를 간취하여 그 연관성을 주장하였다.<sup>12)</sup>

이상과 같이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을 토대로 수혈식석곽묘의 기원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해 줄 절대적인 자료가 충분치 못하여 어느 설이 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하지만 지역에 따른 수혈식석곽묘의 구조적 차이가 피장자의 신분과 각 지역집단간의 위계차이에 따른 양상인지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다음 장에서 후술할 유적들을 세밀하게 검토하면 대략적으로 파악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초기수혈식석곽묘의 연대는 역시 신라토기의 연대로부터 얻어야 할 터이다. 新羅土器의 편년은 여러 先學者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일정한 시각차를 보이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것은 결국 확실한 절대연대자료가 없는 실정에서 중국·일본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연대를 정해서 형식배열한 것이다. 이러한 상대연대의 標識的자료로서 주로 경주중심부에 위치한 高塚古墳의 출토자료가 이용되었다. 여기에 부가해서 경주의 서쪽지역인 大邱·慶山地域, 남쪽지역인 釜山地域의 대형고분들이 신라토기 편년안의 비교자료로 제시되었다. 먼저 경주지역에서 신라토기의 편년설정에 활용된 대표적인 유

9) 崔秉鉉, 1992, 「新羅와 伽倻의 墓制」 『韓國古代史論叢 3집』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氏는 豎穴式石槨墓의 발생을 전대 木槨墓에서의 전환에 중점을 두었으나, 金海 禮安里古墳群에서 확인되는 石棺系石槨墓 등의 先史時代 石棺墓의 영향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氏의 주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는데 즉, 先史時代 石棺墓의 繼承+木槨墓의 轉換으로 볼 수 있다.

10) 洪潛植, 1994, 「豎穴式石槨墓의 型式分類와 編年」 『제 3회 嶺南考古學會 發表 및 討論要旨, 伽倻古墳의 編年研究Ⅱ-墓制-』 嶺南考古學會.

11) 張正男, 2000a, b, 「앞글」(주1)

12) 曹秀鉉, 2003, 「앞글」(주1)

구로는 月城路古墳群, 皇南洞 109號 3·4槨과 味鄒王陵5구역 1호분, 安溪里 3호, 皇南洞110호분, 그리고 皇南大塚 南墳 등이 주된 논의대상이 되었다. 특히 황남대총 남분이 신라마립간 중 누구의 무덤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內物麻立干說과 訥祗麻立干說의 대립으로서 전자는 崔秉鉉<sup>13)</sup>, 李熙濬<sup>14)</sup>, 李鍾宣<sup>15)</sup> 등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후자는 毛利光俊彦<sup>16)</sup>, 金龍星<sup>17)</sup>, 金斗喆<sup>18)</sup>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또한, 釜山地域에서는 복천동고분군의 발굴 성과를 토대로 경주지역 출토유물과 상호비교·검토 안이 신라토기 편년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황남동 109호 3·4곽과 연대가 비슷하거나 전후시기인 福泉洞 1, 10·11, 21·22, 25·26, 31·32호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慶山地域에서는 林堂 G-5, 6호, 旭水 1C-66, 77호 林堂 7A호 등이 皇南洞 109號 3·4槨과 비견될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되었다.<sup>19)</sup>

어떻든 현재로서는 신라고분의 절대연대 연구에 있어서 皇南大塚 南墳을 왕릉으로 볼 경우 그 피장자를 누구로 하느냐를 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마립간설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신라토기의 연대가 대략 반세기, 심지어는 1세기에 가까운 시기 차가 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황남대총 남분을 訥祗麻立干說에 입각해서 慶州地域 初期竪穴式石槨墓의 段階와 編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sup>20)</sup>

### Ⅲ. 檢討對象 遺蹟

#### 1. 慶州·蔚山地域

##### 1) 栗洞古墳群<sup>21)</sup>

- 
- 13)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4) 李熙濬, 1995, 「慶州 皇南大塚의 年代」 『嶺南考古學 17집』 嶺南考古學會  
 15) 李鍾宣, 1996, 「皇南大塚雙墳 : 積石木槨墳研究의 새 指標」 『신라고고학의 제문제-제20회 韓國考古學 全國大會』 韓國考古學會.  
 16) 毛利光俊彦, 1983, 「新羅積石木槨墳考」 『文化財論叢-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記念論文集』  
 17) 金龍星, 1997, 『大邱·慶山地域 高塚古墳의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8) 金斗喆, 1998, 「新羅 馬具研究의 몇 問題」 『新羅古墳研의 現況과 課題-第17回新羅文化學術會議 -』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 金龍星, 1997, 「앞글」 (주17)  
 20) 三國遺事의 기록에서 내물마립간릉은 경주 침성대의 서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皇南大塚은 그 북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헌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점과, 그 보다 이른 皇南洞109호 3·4곽 출토유물의 형식에 비추어 필자는 눌지마립간릉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先學者들이 논의하였으므로 필자가 다시 언급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1)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慶州 栗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경주의 울동역 주변에 있는 두대마을에 위치한다. 유적의 북쪽에는 형산강의 支流인 大川이 흐르며, 그 주변에 舍羅里古墳群, 金尺里古墳群<sup>22)</sup>, 芳內里古墳群<sup>23)</sup> 등이 분포한다. 고분군의 규모와 분포상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는 금척리고분군이 중심고분군으로 상정되며, 이에 비해 울동고분군은 수혈식석곽묘만이 다수 조성된 고분군으로서 주변에 적석목곽묘가 주로 조성된 금척리나 사라리고분군보다는 위계상으로 하위집단으로 생각된다. 이 고분군에서는 모두 75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57호를 속성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 2) 舍羅里古墳群<sup>24)</sup>

사라리고분군은 해발 40~100m의 낮은 구릉상에 분포하며 경북내륙과 경주분지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아화고개를 통해 영천, 경산과 경주를 잇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한다. 또한 금척리고분군과 함께 경주서부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 상정되고 있다. 이 고분군에서는 모두 12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사라리 92호석곽묘를 속성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 3) 羅亭里古墳群<sup>25)</sup>

경주시 양북면 나정리 마을의 하구로 동해의 해안가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작은 나정천이 흐르고 그 위쪽은 蓮台山과 연결되어있다. 고분군은 연태산의 山麓보다는 주로 해안의 모래사장에 밀집 분포하고 있다. 이 고분군에서는 모두 7기의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되었지만 대부분이 건물공사로 파괴가 심하여 정확한 형태나 분포 수는 알 수 없다. 이 중 수혈식석곽묘 1, 4호를 속성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 4) 下三政古墳群<sup>26)</sup>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하삼정리에 위치하며 대곡댐 편입부지내 수몰예정지역의 유적이다.

22) 崔鍾圭, 1981, 『金尺里古墳群 發掘調査 概報』國立慶州博物館

금척리고분군은 경주중심부를 제외하면 경주주변지역에서 가장 큰 고층고분군으로서 주로 적석 목곽묘가 다수 조성되어있다.

23) 慶州文化財研究所, 1996, 『慶州 芳內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24) 嶺南文化財研究院, 1999, 『慶州 舍羅里遺蹟 I -積石木槨墓, 石槨墓-』

25) 尹容鎮, 1985, 『月城 羅亭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26) 下三政古墳群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여기에 관한 상세한 논고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하며 수혈식석곽묘의 구조적 속성분석은 가-186호가 파괴가 심하여 가-66호만을 검토하였다.

曹秀鉉, 2002, 『해양교류의 고고학-蔚山 下三政古墳群 發掘調査概報-』『제26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한국고고학회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3, 『蔚山圈 廣域上水道(大谷댐)事業 編入敷地內 4次 發掘調査-1次 現場說明會 資料-』

이 유적에서는 3차 발굴지역인 하삼정고분군 I에서 모두 18기의 석곽묘와 석실분, 적석목곽묘 등이 조사되었으며, 4차 발굴지역인 하삼정고분군 II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조사가 완료된 하삼정고분군 I의 석곽묘 9호와 하삼정고분군 II의 가-66호, 가-186호 등을 속성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 5) 早日里古墳群<sup>27)</sup>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76-1번지에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 통도사 인터체인지에 서 경주방면 약 2.5Km지점에 위치한 해발 140m의 구릉정상부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 고분군에서는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옹관묘 등 138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시기는 주로 5~6세기 대로서 초현기는 5세기 중엽으로 보고되어 있다.

조일리고분군은 자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보고자에 의하면 56-2, 61-1, 62-1, 71, 82호 등이 5세기 중엽으로 설정되어 있다.

## 2. 釜山·金海地域

### 1) 華明洞古墳群<sup>28)</sup>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00번지 일대의 해발 50m내외의 자그마한 동산 정상부와 구릉상에 위치한다. 지리적으로 구포-양산간의 지방도로 연변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500m 떨어진 곳에 낙동강이 위치하고 있다. 이 동산은 김해평야지대와 낙동강사이에 입지하고 있어 지리상으로 요충지대이다. 이 유적에서는 모두 7기의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초기수혈식석곽묘는 2, 5, 7호가 보고되었다.

### 2) 福泉洞古墳群<sup>29)</sup>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일대로서 동래시가지를 에워싸고 있는 大砲山 중앙부 하단의 동래여고와 내성초등학교 사이의 낮은 구릉상에 위치한다. 이 고분군은 대부분 해발 62.5m~45m 정도에 조성되었고,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갈수록 지세가 완만하게 낮아진다. 특히 대형분은

27) 早日里古墳群은 蔚山大學校博物館과 昌原文化財研究所의 합동 조사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주로 보고서가 간행된 창원문화재 연구소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9, 『蔚山 早日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28) 釜山大學校博物館, 1979, 『釜山 華明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29) 釜山大學校博物館, 1982, 1990, 1996, 『東來 福泉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I, II, III』

대부분이 구릉정상부에 밀집분포하고 있다. 이 유적의 초기수혈식석곽묘는 21·22, 10·11, 39, 53호 등으로 칠산동, 화명동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와 마찬가지로 평면형태가 주로 장방형이며, 출토유물이나 규모로 미루어 부산지역에서 가장 큰 정치집단의 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

### 3) 禮安里古墳群<sup>30)</sup>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시례마을에 위치하며, 대부분 해발 10m내외의 사구분지인 수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목곽묘, 석곽묘 등의 분묘유구가 주를 이룸이 확인되었고, 수습된 청동기시대의 세형동검과 신석기말기인 이중구연토기 등이 출토되어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복합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유적의 초기수혈식석곽묘는 Ic기인 14, 22, 25, 76호 등은 4세기 후엽, IIa기인 15, 23호 등은 5세기 전엽, IIb기인 9호 등은 5세기 중엽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중 IIa기인 5세기 전엽 이후에는 가야토기보다 신라토기의 부장이 압도하고 있어 이 시기부터 新羅勢力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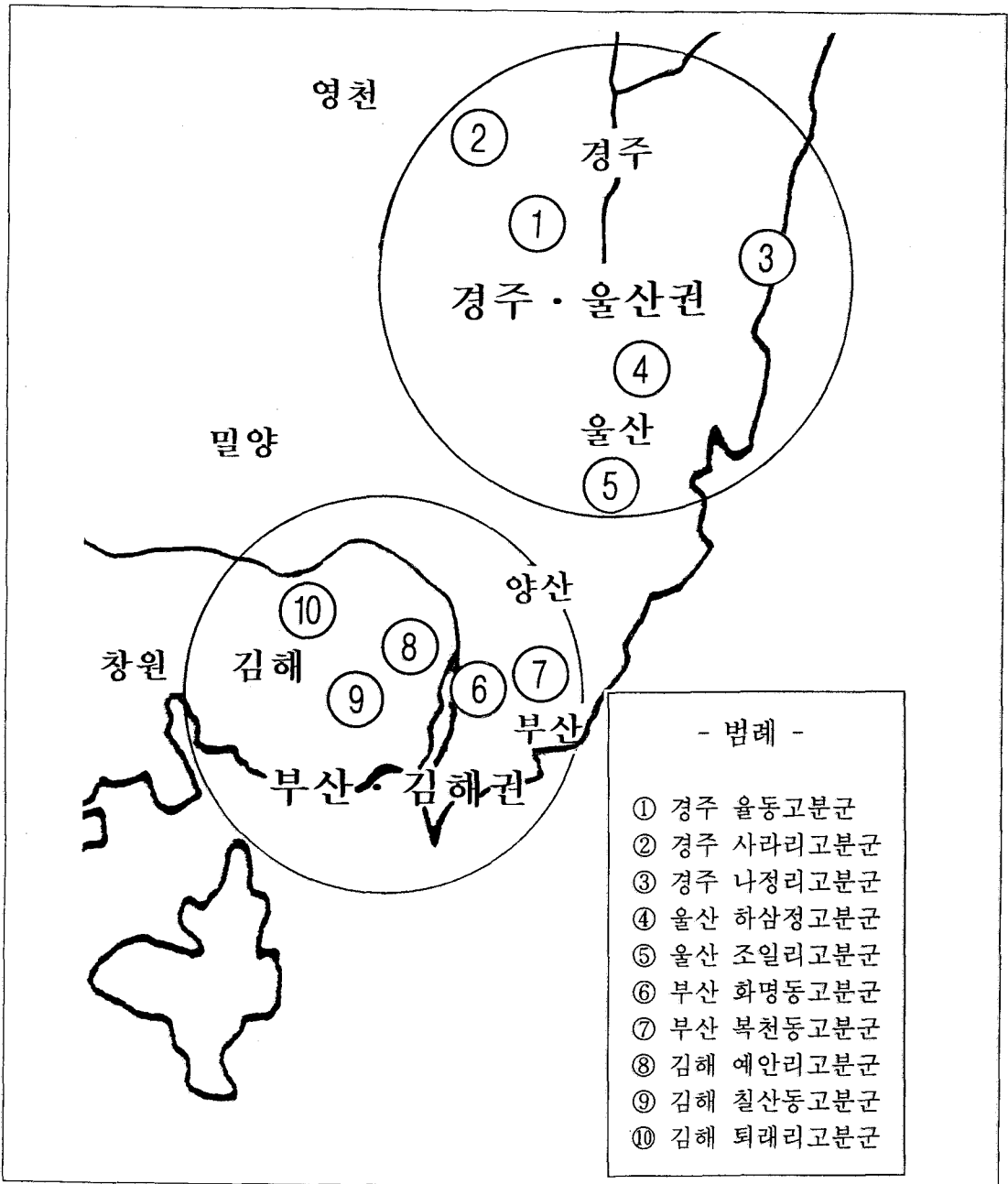
### 4) 七山洞古墳群<sup>31)</sup>

김해시가지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칠산의 해발 100m 내외의 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이 고분군은 김해 일대에 산재해 있는 고분군 중 가장 고지대에 위치하며, 대규모 고분군 중의 하나이다. 이 고분군에서는 모두 12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4~5세기대의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주를 이룬다. 특히 수혈식석곽묘는 평면형태가 대부분 장방형으로 초기석곽묘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가 작성된 제Ⅲ지구의 수혈식석곽묘를 주로 검토하였다.

30) 釜山大學校博物館, 1985,1993,『金海 禮安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I, II』

31) 慶星大學校博物館, 1989,『金海 七山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圖面 1. 初期竪穴式石槨墓의 分布(東海南部地域)

## IV. 屬性分析과 段階設定

### 1. 遺物의 屬性分析

단 계		고 배	기	종
			개	대부장경호
제1기	1a	유개식무개고배, 곡석적인 八자형, 대각상부가 두터워짐, 엇갈린 이단투창, 대각은 3단구성, 뚜껑받이 형성안되고 뚜껑없음.		장경호의 기형은 완성되나, 대부장경호는 출현하지 않음.
	1b	2단 투창유개식고배의 완성, 고배의 대각이 직선화 대각상부 더욱 두터워지고 截頭方錐形에 가까움, 뚜껑받이가 직립하지만 반출되지 않음, 대각은 3단 구성이 기본 절두방추형의 2단구성이 확립됨, 투창은 5개인경우가 많음.	대각도치형에 네모투창의 전형적인 신라고배 및 개의 출현, 문양은 점열문이 시문됨.	1단 투창의 대각을 가진 대부장경호가 출현 구연은 직립하면서 구연부 끝은 약간 내경함.
제2기	2a	고배는 절두원추형의 2단대각 구성이 기본이며 약간 내경하거나 직립한 뚜껑받이턱이 확립, 고배의 배신과 뚜껑에 삼각조대문과 파상문이 유행하며 집선문이 출현한다. 투창은 4개인 경우가 많음.	대각도치형의 네모투창에 꼭지가 짧아지고 꼭지상부는 직립하면서 외반함.	대부장경호는 2단대각이 출현하면서 견부의 사각짓기가 명확해지며, 동체상부의 돌대가 강하게 돌출되어 있음.
	2b	고배는 대각의 지름이 배신에 비해 축소되고 대각은 세장해짐, 문양이 다양해짐, 특히 집선문이 유행.	대각도치형보다 굽형이 유행 집선문이 확립, 배신은 곡선화 됨	구경 최상단이 길어지기시작. 견부의사각짓기는 현저하게 둔화됨. 동최대경이 점점 아래로 처짐.
제3기	3a	2단 투창고배에 2중거치문이 유행, 투창은 4개에서 3개가 주류, 각단의 말단부는 벌어지면서 말려 올라가기 시작함.	꼭지는 등근테모양으로 투창이 더욱 작아지고 원형투공에 가깝거나 투공형도 나타남, 뚜껑받이는 짧아지고 내경도가 강해지며 대각상부가 좁아짐.	구경이 더 길어지며 돌대로 구분된 최상단부에서 안으로 꺾이면서 외반하여 벌어짐 견부의 사각짓기는 거의 사라지고 원점문+집선문의 결합문이 유행. 부가구연대 부장경호의 출현.
	3b	배신이 깊어지고 대각길이 현저하게 짧아짐, 문양은 사격자문이 유행, 각단의 말단부는 벌어지면서 말려 올라가는 것이 주류.	꼭지는 투공이 뚫린 굽형으로 바뀌고 무투공의 굽형도 나타남.	부가구연 대부장경호의 유행.
제4기		고배의 단각화 구연은 더욱 내경하고 개와 배신을 결합한 형태가 구형을 이룸. 반원형 콤파스문과 삼각조대문의 결합문이 유행 대각과 배신의 높이가 같아지거나 대각이 낮아지는 것도나타남.	유개고배 뚜껑의 굽다리 꼭지가 반전함.	부가구연 대부장경호는 작아지고 동체부도 편구형으로 되어가며 대각단이 크게 반전하거나 말려 올라감.

表 1. 新羅土器의 段階別 特徵

지금까지 선학들에 의한 신라토기의 편년안들이 다수 발표되었으므로<sup>32)</sup> 기존에 제시된 각 단계별 특징을 토대로 하여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단계와 편년을 검토하였다.(表 1 참조)

먼저 경주·울산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초기수혈식석곽묘의 분포상을 살펴보면, 경주지역의 유적이 3개소, 울산지역의 유적이 2개소가 확인되었다. 이 중 울산 하삼정고분군은 엄격히 말한다면 경주지역으로 보아도 무난하리라 생각된다.<sup>33)</sup> 그리고 조일리고분군은 보고서가 간행되었으나, 자료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속성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유물은 앞의 표 1에서 선정된 기종의 형식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이 중 고배는 구연단과 배신부, 각단의 형태와 기고를 주 속성으로 하고, 개는 꼭지의 형태 및 드립부와 신부의 형태를 주 속성으로, 그리고 대부장경호는 구경부의 변화와 돌대의 유무, 문양, 동체부의 형태 및 대각의 형태를 주된 속성으로 취하여 각 단계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 2 段階設定

### 1) Ia기

신라토기의 분화직전인 공통양식기에 속하며 모두 古式 陶質土器이다. 고배는 구연부가 약간 외반하다가 뚜껑받이턱에서 약간 아래로 처진 단면삼각형을 이루고, 배신은 약간 깊으며 대각은 八字상으로 벌어지다가 대각 말단부에서 거의 직립한다. 대각에는 上下에 걸쳐 3개의 삼각투창을 뚫었다. 단경호는 동체 중상위에 동 최대경이 있고 원저이며, 기벽이 매우 두껍고 경부에는 2조의 돌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유구는 하삼정고분군 석곽묘 9호가 유일하며, 이 단계와 비슷한 시기의

32) 이 글에서는 李熙濬과 李盛周가 제시한 각 단계별 신라토기의 특징을 인용하였다.

李熙濬, 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盛周, 1993, 「洛東江東岸樣式土器에 대하여」『제 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회』영남고고학회.

33) 蔚山 下三政古墳群은 1917년경까지 행정구역상 경주시 내남면에 속해 있었으며, 본 유적의 지리상이나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수혈식석곽묘가 출현하는 5~6세기대는 경주지역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필자는 언양을 경계로 경주지역과 울산지역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三國史記』卷 第 34, 雜誌 第1, 地理1 良州條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蔚山 西北部의 彦陽으로 비정된 居知火縣은 양주로 소속되어 있었고, 일찍이 斯盧國에 편입되어 있었다. 이런 점은 5세기 이후 신라세력이 梁山과 慶州의 곡간지대를 따라 彦陽과 梁山을 정복하고 釜山·金海地域으로 진출하는 교통망의 체계내에서 이해할 수 있다.

曹秀鉉, 2003, 「앞글」(주1)

朴鍾益, 2000, 『蔚山 早日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IV.考察』昌原文化財研究所

유구는 蔚山 茶里古墳群 지표채집품<sup>34)</sup>과 慶州 月城路 가-6호 등이 있으며, 연대는 4세기 후반 늦은 시기~5세기 전반의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 2) Ib기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는 이 단계부터 신라토기의 부장이 이루어지며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하삼정고분군Ⅱ ‘가’ 지구의 석곽66호, 186호 등이 확인되었다. 이 단계의 고배는 대각이 대부분 3단 구획되었고 개가 공반되지 않는다. 또한 대부장경호의 대각을 의도적으로 깨뜨린 채로 부장된 것도 다수 확인된다. 그리고 2단 구획된 고배가 수점 확인되나, 투창이 多透窓인 요소와 蓋가 공반되지 않고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경주 황남동 109호 3·4곽보다는 약간 늦은 단계이고 경주 황남동 110호분보다는 약간 이른 단계로 생각되며, 경주지역의 수혈식석곽묘에서 전형적인 신라토기의 부장은 지배층의 묘제인 적석목곽묘보다는 약간 늦은 단계에 부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단계와 비슷한 시기의 유구는 부산 복천동 21·22호, 경주 안계리 3호중곽 등이 있으며, 연대는 5세기 전반의 늦은 시기로 볼 수 있다

## 3) IIa기

이 단계에 해당하는 유구는 사라리 석곽92호, 울동57호, 울산 조일리56-2, 61-1, 62-1, 71, 82호분 등이다. 고배는 배신이 비교적 깊고 구연은 약간 외반하다가 뚜껑받이에서 직각으로 꺾여 신부에서 크게 내경한다. 대각은 八字상으로 말단부에서 비스듬하게 내경하며 대부분 2단구획이나 3단구획의 약한 요소가 관찰된다. 1단 장방형투창고배는 배신부에 파수가 부착된 것이 관찰되는데 황남동110호분, 울동57호분에서도 확인된다. 개는 배신이 깊고 꼭지는 대각도립형이며 장방형투창이 4개 뚫려 있다. 대부장경호는 동체 상위에 1조의 돌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구경부는 거의 직립하다가 약하게 내경한다. 대각은 八字상으로 거의 직립하거나 내경하며 장방형투창 7개가 뚫려있고 파상문이 시문되었다.

34) 徐号男·金度憲, 1998, 『蔚山下垵遺蹟-古墳Ⅱ, -Ⅲ. 맺음말』釜山大學校博物館

보고자는 彦陽 茶里地表採集品 중 하삼정 석곽9호 출토품과 유사한 기종을 5세기 전반으로 편년하고 있으며 울산 하대채집품과는 달리 가야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유물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식도질토기의 양상이 잔존하며 신라토기양식이 분화되기 직전이므로 완전하게 신라토기로 구분하는 것은 유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상하 4단에 걸친 삼각투창의 요소라든지, 배신에 비해 대각상단의 폭이 좁고 八字상으로 크게 외반하는 요소는 가야지역에서도 출토예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요소가 앞 시기의 경주주변지역의 목곽묘에서 출토된 예가 있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형식의 기종을 완전하게 신라토기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단계와 비슷한 시기의 유구는 황남동110호분, 북천동10·11호, 53호, 월성로 나13호 등이 있으며 연대는 5세기 중반의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 4) IIb기

이 단계에 해당하는 유구는 월성 나정리1, 4호, 울산 조일리2, 3, 28-1, 46, 73, 80-2호 등이다. 고배는 배신부가 대각에 비해 넓으며 구연은 약하게 외반하다가 뚜껑받이턱에서 단면삼각을 이룬다. 대각에는 상하에 교호 장방형투창이 5개가 뚫려 있다. 대각은 八字상으로 벌어지다가 대각 말단에서 1단 꺾이며 내경한다. 1단 장방형 투창고배 역시 대각에 비해 배신부가 넓고, 대각에 4개의 장방형 투창이 뚫려있다. 개는 신부에 점열문이 시문되었고 3조의 침선에 의해 구획되었다. 개 꼭지는 대각도립형으로 장방형투창이 4개가 형성되어 있다. 대부장경호는 동체 상위에 1조의 돌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약간 퇴화한 느낌을 준다. 구경은 거의 직립하거나 약간 내경하며 구경부 및 동체상위에도 파상문이 시문되었다. 이 단계와 비슷한 시기의 유구는 황남대총 남분, 사라리 적석목곽묘33호, 월성로 나-12호 등이 있으며 연대는 5세기 중반의 늦은 시기~5세기 후반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 3. 遺構의 屬性分析

유구는 주로 석곽묘의 내부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중 규모, 평면형태, 축조 방법, 바닥형태, 유물부장형태 등을 주 속성으로 삼았다. (表 2 참조)

연대	속성 유구명	석곽규모(cm)				장폭비	장축방향	평면형태	축조방법	바닥형태	유물 부장형태
		길이	너비	깊이	면적(m <sup>2</sup> )						
I a	하삼정 I 9호	270	60	잔 13	15	4.5:1	N2 W	말각세 장방형	평적	주공간만 소형활석시상	단
I b	하삼정 II 가-66호	274	64	잔 50	16.4	4.3:1	북동-남서	세장방형	평적 +수적	주공간만 소형활석시상	단
II a	울동 57호	314	64	잔 50	20	4.9:1	N39 E	세장방형	평적 +수적	무시상	단
	사라리 92호	278	80	잔 30	22.2	3.5:1	N90 E	장방형	평적	무시상	단
II b	나정리 1호	340	120	잔 60	40.8	2.8:1	N-S	장방형	평적	무시상	단
	나정리 4호	300	110	잔 40	33	2.8:1	N15 W	장방형	평적	무시상	양단

表 2. 慶州地域 初期竪穴式石槨墓 屬性表

1) 規模<sup>35)</sup>

규모는 表 2와 같이 시기가 늦어질수록 약간씩 커지는 경향이 관찰된다. 즉, Ia기 IIb기로 갈수록 면적과 너비 등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5세기 후반에 규모가 대형화하는 경주지역 고분의 조영현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된 피장자의 신분과 계층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5세기 후반부터는 경주주변지역에서도 각 지역집단에 따라 규모나 유물부장양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적석목곽묘의 조영 여부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sup>36)</sup> 특히 사라리고분군은 적석목곽묘가 주요제로 먼저 조영되고 수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이보다 늦은 시기에 조영되는데 비해 울동고분군은 초현기부터 계속해서 수혈식석곽묘만으로 조영되다가 5세기 중반이후부터는 경주 서부지역에서 수혈식석곽묘의 중심지로 부각된다. 즉, 적석목곽묘를 축조한 상위계층의 집단인 사라리고분군은 신라중앙의 주요거점지역으로서 신라중앙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울동고분군은 지방재지층의 중심고분군으로서 신라중앙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가 훨씬 완화된 자치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주 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는 5세기 중반이후부터 각 집단의 계층과 신라사회의 발전정도에 따라 그 규모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平面形態<sup>37)</sup>

평면형태는 시간적으로 정형성을 띠면서 변화한다. 즉 I기인 하삼정고분군의 세장방형 평면형태에서 II기로 갈수록 대부분이 장방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I기 이후에는 다시 각 지역별로 평면형태를 달리하며 변화한다.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평면형태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Ia기인 하삼정 석곽9호는 각 모서리를 말각화 한 말각세장방형이며, Ib기인 하삼정 II가-66호 등은 네벽 모서리가 완전히 직각을 이루는 세장방형이다. IIa기인 사라리92호, 울동57호는 각각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서 이 시기부터 각 집단마다 평면형태를 달리하게 된다. IIb기인 나정리1, 4호는 모두 장방형, 언양지역과 인접해 있는 울산 조일리고분군의 II, III단계는 대부분 세장방형의 형태를 띤다. 즉, 울동고분군 등과 같이 세장방형으로 변화한 집단, 나정리고분군 등과 같이 장방형으로 변화한 집단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평면형태 변화상은 말각세장방형 세장방형 세장방

35) 규모는 석곽의 규모가 3m 이상이면 대형, 2m이상~3m이하이면 중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규모는 중형에서 대형으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36) 曹秀鉉, 2003, 「앞글」(주1)

37) 평면형태는 석곽의 길이×너비의 장폭비 4:1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형·장방형으로 변화하며 IIa기부터 각 지역집단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과 장방형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sup>38)</sup> 그리고 5세기 중반이후의 경주 주변지역은 차츰 수혈식석곽묘가 일반화되고 6세기를 전후하여 내세사상의 인식증가와 사회발전에 따라 유물부장량의 증가와 규모 대형화가 이루어진다.

### 3) 築造方法<sup>39)</sup>

청동기시대의 석관묘처럼 판석을 수직인 기법에 비해 중·횡으로 평적한 적석기법의 도입은 상당한 노동력과 기술력을 요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의 도입은 집단 내에서도 제한된 유력층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축조방법은 김해 예안리고분군과 김해 칠산동, 부산 화명동, 복천동고분군의 축조기법과 동일한 요소가 모두 관찰된다. 즉, Ia기인 하삼정 9호는 복천동고분군의 22호 주곽과 유사한 형태인 벽모서리의 말각화와 평적기법을 이용한 점에서 공통된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복천동고분군 21·22호는 석곽+목곽의 형태인 주·부곽식으로 구분되어 목곽묘에서 석곽묘로의 과도기적인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하삼정고분군 석곽9호 역시 규모가 작고 세장방형이나 분명히 주공간과 부장공간이 축조기법을 서로 달리한 점, 부장공간이 주공간보다 너비가 약간 더 넓은 점에서 전대의 목곽묘적인 요소가 간취된다. 그리고 종평적으로 축조한 양장벽과 굴광사이에는 활석을 뒷채움하여 보강한 점도 그 하나의 증거라 볼 수 있다. 이것에 비해 Ib기인 하삼정 II가-66호는 예안리고분군 Ic기의 22호 축조기법인 평적+수적으로 축조하였다. 규모와 시기적인 차이가 문제이나, 축조방법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네벽 중 양장벽은 종평적이며, 양단벽은 수적기법을 이용하여 네벽 모서리를 직각으로 처리하였다. 다음단계인 IIa기인 사라리 92호와 울동 57호는 평적과 평적+수적기법으로 축조방법상의 차이점이 확인되고, IIb기는 모두 평적기법으로 축조된다. 따라서 축조방법은 IIa기부터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나며, 5세기 중반이후의 각 지역집단 고분군들은 평적기법만을 이용한 고분군과 평적, 평적+수적기법 등의 다양한 축조방법을 이용한 고분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축조방법은 대체적으로 평적 평적+수적 평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8) 필자는 前稿에서 경주지역의 평면형태 변화상을 시기적으로 장방형 세장방형 장방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사라리 92호보다 선행한 유구의 확인으로 본고와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曹秀鉉, 2003, 「앞글」(주1)

39) 축조방법은 평적, 평적+수적, 수적기법의 세 형식으로 구분된다.

#### 4) 바닥형태

바닥형태는 주공간에만 상면에 납작한 소형 할석을 깎 형태와 무시상인 형태로 구분되며 시기적으로는 전자에서 후자로 변화한다. 전자는 I기에 해당되는데 모두 피장자가 안치된 공간에만 시상을 하였다. Ia기가 Ib기에 비해 바닥에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형 할석이 조밀하게 깔려있는 반면, Ib기는 약 10cm 내외의 할석을 드문드문하게 깔았다.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 I기의 형태는 부산 화명동과 복천동의 초기수혈식석곽묘에서 다수 확인되고, 후자인 II기는 모두 무시상으로 생토바닥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일부 점성이 강한 흙으로 정지하였고, 주로 김해 예안리고분군의 초기수혈식석곽묘 Ic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 5) 유물부장형태

유물의 부장은 1차적으로 피장자의 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2차적으로는 규모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sup>40)</sup>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규모가 김해지역의 예안리, 퇴래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 등을 제외한 다른 고분군에 비하면 그다지 크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유물부장량도 소량이며 피장자의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유물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주 피장자는 지방수장층보다는 낮은계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물의 부장은 I기에서 IIa까지는 모두 단부장이다가 IIb기부터 양단부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유물부장형태는 시기적으로 크게 단부장 양단부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V. 釜山·金海地域과의 關聯性

#### 1. 立地와 集團類型

부산·김해지역에서 초기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된 유적은 부산화명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 김해 예안리고분군, 칠산동, 퇴래리고분군<sup>41)</sup>등이며,<sup>42)</sup> 위에서 열거한 유적의 입지 및 집단유형에 대해서는 安在晔에 의해 제시되어졌다.

40) 가령, 나정리 1, 4호는 규모나 면적이 사라리 92호, 울동57호보다 크지만 철기의 부장에 있어서 나정리1호-1점, 4호-2점으로 사라리 92호-15점, 울동57호- 16점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다.

41) 成均館大學校博物館, 1989, 『金海 退來里遺蹟- 나 地區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42) 이 지역 외에 영남지역에서 5세기 전반대의 유구가 확인된 유적은 합천 봉계리86호 소형수혈식석곽묘, 창원 도계동고분군이 있다.

沈奉謹, 1986, 『-陝川 鳳溪里古墳群- 陝川댐 水沒地區 發掘調査報告』第7冊

朴東百, 秋淵植, 1987, 『昌原 道溪洞古墳群 I』昌原大學校博物館



時期	集團	A類型	B類型	C類型
4世紀前葉~中葉		木槨	木槨	
4世紀後葉		木槨	木槨	石槨·木槨
5世紀前葉		木槨	石槨·木槨	石槨·木槨
5世紀中葉~後葉		石槨·木槨	石槨·木槨	石槨·木槨
立地		丘陵·台地	낮은 丘陵의 斜面	높은 丘陵의 頂部
遺蹟		福泉洞(連山洞, (大成洞), (良洞里), 茶戶里)	禮安里, 退來里, 道溪洞	華明洞, 七山洞

表 3. 初期竪穴式石槨墓의 立地 및 集團類型(安在皓, 1990)

表 3과 같이 氏는 낙동강하류역인 부산·김해지역의 집단유형에 대하여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A유형은 그 자체의 중심집단을 상위에 두고 그 하위에는 B형 집단을 가진 피라미트 형태의 완전한 경제적 정치적 독립체가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B유형은 일반지배계층의 집단으로 A형 집단의 勢力下에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독립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았다.

C유형은 B형 집단에서 분리된 특별한 성격을 가진 집단이다. 즉, A·B형 집단이 기존의 목곽묘사회에 충실한 전통적·토착적 성향이라고 한다면, C유형의 집단은 혁신적·군사적 성격이 높은 집단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는 어떠한 유형의 집단에 속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적으로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된 고분군의 입지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이른 시기인 하삼정고분군은 谷底沖積地帶의 평지 및 구릉말단부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반구대 암각화가 위치하는 大谷川이 흐르고있다. 다음단계인 을동고분군과 사라리고분군은 야산의 저구릉사면에 조영되어있다. 그리고 가장 늦은 단계인 나정리고분군은 동해바다를 마주보는 해안단구지대의 평지에 조영되어 있어 경주지역은 대부분 安在皓의 B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입지유형은 신라지배층의 묘제인 적석목곽묘가 경주중심부의 평지에 일정한 묘역을 형성하면서 조영될 즈음, 경주주변지역의 小地域集團은 새로운 묘제인 수혈식석곽묘를 채택하여 대부분 평지나 구릉말단부에 조영하여 지배층집단에 복속되지 않은 자치적인 사회를 이루었다는 의미를 시사한다.

## 2. 段階와 編年の 檢討

### 1) 遺物

부산·김해지역의 수혈식석곽묘의 단계와 편년은 여러 先學者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제시된 편년과 유구를 살펴보면 表 4와 같다.

단계	유구	유구명
제 1기(4세기 후엽)		예안리 1c, 칠산동 2기, 화명동 5호
제 2기(5세기전엽)		예안리 II a, 칠산동 3기,복천동 21·22호, 화명동 2,7호
제 3기(5세기 중엽)		예안리 II b, 칠산동 4기, 복천동 9,11, 53호

表 4. 釜山·金海地域 初期竪穴式石槨墓의 段階와 編年

먼저 1期은 申敬澈의 古式陶質土器 III단계 및 禮安里 1c기, 七山洞II기에 해당하며 전 시기의 短脚된 무개식고배가 공존하며 보다 장각화된 외반구연 무개식고배 및 전형적인 가야식고배인 장각의 투공있는 유개고배가 등장하고, 陶質 圓筒形器臺, 高杯型器臺, 小形 廣口圓低壺 등의 新 器種이 출현한다.

2期은 古式陶質土器 IV단계, 禮安里 IIa기, 七山洞3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 토기의 특징은 고식도질토기의 표지인 爐形土器가 소멸하고 伽倻式 장경호인 광구형 원저장경호가 출현하며 경부나 동체에 집선과상문이 시문된다.

3期은 禮安里 IIb기, 七山洞 4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신라양식토기화가 이루어지고, 이때부터 가야·신라식토기의 2대 양식토기문화가 낙동강하류역에 반영되고 있다. 칠산동 33호가 좋은 예로서, 상하교호의 2단 투창고배 및 신라식 대부장경호의 출현을 통해 알 수 있다.<sup>43)</sup>

이와 같이 토기의 변화상을 기준으로 낙동강하류역인 부산·김해지역의 초기수혈식석곽묘의 편년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 복천동고분군을 제외한 다른 3개의 고분군에서는 4세기 후엽에 모두 수혈식석곽묘가 동시기에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遺構

낙동강하류역인 부산·김해지역의 초기수혈식석곽묘는 각 지역집단에 따라 그 형태나 규모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크게 大, 中, 小形으로 구분된다.(表 5참조)

대형의 수혈식석곽묘만이 조성되는 복천동고분군은 이혈의 주·부곽식에서 동혈의 주·부

43) 申敬澈, 1985, 1989, 「앞의 논문」(주7)

그런데 경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복천동고분군의 21·22호분에서는 김해 칠산동 33호보다 먼저 신라토기가 출현하고 있다. 이것은 복천동고분군의 최고수장층에서 타 지역고분군보다 먼저 신라지역과의 토기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복천동과 연결선상에 있는 김해 칠산동고분군과 김해 예안리고분군은 제 4기와 IIb기부터 가야·신라토기의 양식분화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시기적·지리적으로 그 전파루트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산·김해지역의 수혈식석곽묘에서는 5세기 전엽부터 신라토기문화가 유입되었으며, 복천동고분군은 21·22호보다 전 단계인 25·26호 등에서부터 신라토기가 부장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5세기 전엽 이전부터 경주지역과 밀접한 문화교류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곽식으로 변화하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장방형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인접한 부산 연산동고분군 역시 복천동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가 세장방형화하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조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천동고분군의 모형변화는 평면형태가 변화하는 시기에서 부곽의 형태인 목곽이 주곽의 형태인 석곽에 완전히 흡수되면서 석곽으로만 축조된 수혈식석곽묘의 완전한 정형이 나타난다. 한편, 洪漣植<sup>44)</sup>은 복천동고분군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수혈식석곽묘를 복천동 22호 주곽으로 보고 이보다 한 단계 선행한 칠산동 I 지구 6호, II 지구 14, 27, 35호 등의 평면형태와 동일하고 네벽의 모서리가 말각된 점, 네벽면이 동시에 축조된 점에서 목곽묘와 석곽묘로의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칠산동의 선행 수혈식석곽묘의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安在皓의 논고에서도 제시되었다. 氏는 복천동고분군집단이 小地域集團인 칠산동, 화명동집단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수혈식석곽묘를 축조하던 숙련된 고급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선진묘제 도입의 결과물로 간주하였다.<sup>45)</sup>

한편, 이러한 선진묘제의 출현을 고구려와 연관지어 이해하려는 견해가 있으나<sup>46)</sup> 필자는 고구려와의 관련성보다는 이시기 가장 선진적인 지역인 낙동강하류역에서의 문화교류현상에 의한 결과물, 혹은 木材의 대체 재료인 石材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석곽의 원류가 고구려와 중국화북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어디에서 그 원류를 받아들였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두 지역 모두 지배층집단보다 위계상 낮은 集團에서 먼저 채용되어지고, 또한 전대 목곽묘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洪漣植과 安在皓의 견해에서 약간의 의문점이 간취된다. 그것은 복천동의 초기수혈식석곽묘인 22호 주곽의 구조 해석에 관한 것인데 칠산동고분군은 유물부장형태와 바닥형태에서 복천동 22호 주곽과 약간의 차이가 관찰된다. 즉 칠산동고분군의 유물은 장벽의 직하에 치우쳐서 부장된 경우가 많으나 복천동과 화명동고분군은 단벽, 양단벽 아래에 유물이 정형화되어 부장되고 있다. 또한 바닥형태에서도 칠산동고분군은 생토바닥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복천동과 화명동고분군은 중앙에 소형할석을 깔 점에서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관찰된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차이점은 각 집단간의 지역성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어떻든 칠산동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의 구조가 복천동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에 그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견해는 약간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4) 洪漣植, 1994, 「앞의 논문」(주10)

45) 安在皓, 1990, 「앞의 논문」(주2)

46) 申敬澈, 1985, 1989, 「앞의 논문」(주7)

연대	속성 유구명	석곽규모(cm)				장폭비	장축방향	평면형태	축조방법	바닥형태	유물부장 형태
		길이	너비	깊이	면적 (m <sup>2</sup> )						
1기	화명동5	348	140	158	49	2.5:1	동-서	장방형	평적	중앙에 소형할석시상	단부장
	칠산동27	325	120	100	39	2.7:1	동-서	장방형	평적	무시상	장벽부장
	예안리14	186	42	40~65	7.8	4.4:1	남-북	세장방형	평적	무시상	단
	예안리22	160	44	50	7	3.6:1	남-북	장방형	평적+수적	무시상	단
	예안리27	293	62	70	18	4.7:1	동-서	세장방형	평적	무시상	단
2기	화명동2	365	140	80	51	2.6:1	동-서	장방형	평적	중앙에 소형할석시상	양단
	화명동7	267	80	80	21	3.3:1	동-서	장방형	평적	무시상	양단
	칠산동25	160	80	61	20	2:1	동-서	장방형	평적	무시상	장벽부장
	칠산동38	265	115	80	30	3:1	E17 S	장방형	평적	무시상	장벽부장
	북천동 22주곽	475	160	160	76	3:1	동남-북서	장방형	평적	소형할석시상	양단
	예안리15	265	70	80	19	3.8:1	동-서	장방형	평적+수적	무시상	단
3기	예안리23	190	40	50	7.6	4.7:5	동-서	세장방형	평적+수적	무시상	단
	칠산동 33주곽	300	95	90	29	3.2:1	남-북	장방형	평적	소형할석 2열로 시상	단
	부곽	65	95	90	6	0.69:1					
	북천동 11주곽	430	150	150	65	2.9:1	남-북	장방형	평적	중앙 소형할석시상	양단
	북천동 53주곽	460	140	122	64	3.3:1	북-서	장방형	평적	중앙 소형할석	양단
예안리9	270	70	65	19	3.9:1	동남-북서	장방형	평적+수적	무시상	단	

表 5. 釜山·金海地域 初期竪穴式石槨墓 屬性表

따라서 필자는 북천동고분군에서 수혈식석곽묘의 발생은 5세기를 전후한 이 지역의 정세<sup>47)</sup>에 의한 영향으로 각 지역마다 구조나 형태에서 전대의 전통을 계승 또는 발전시켜 자체발생한 것으로 보고자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고분군보다 수혈식석곽묘의 발생과 기원에 관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고분군이 바로 김해 예안리고분군이다.<sup>48)</sup>

47) 5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가장 큰 사건은 高句麗의 南征(400년)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경주중심지의 지배층의 묘제인 정형화된 적석목곽묘의 출현과 경주주변지역에서 수혈식석곽묘로의 출현 등 전대 목곽묘에서 계층을 달리하여 묘제의 전환이 시작되어진다. 묘제전환을 하게된다. 이러한 경주지역의 묘제전환과 계를 같이하여 부산지역의 지배층집단인 福泉洞古墳群 역시 목곽묘에서 자체적으로 수혈식석곽묘로의 묘제변화를 이루게 된다.

48) 김해 예안리고분군은 김해 퇴래리고분군과 더불어 저지대의 평지에 주로 조영되었는데 주로 초기수혈식석곽묘는 대부분 중·소형으로 3m이상인 것은 1기도 확인되지 않았고, 평면형태는 주로 세장방형으로, 북천동, 화명동, 칠산동고분군과는 확실한 차이점이 관찰된다.

특히 수혈식석곽묘의 조형이라 할 수 있는 예안리 I b기인 석관계석곽묘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관해 申敬徹은 수혈식석곽묘의 조형으로 파악하는데 비해 安在皓는 청동기시대 석관묘의 쇠퇴기의 것으로 간주하였다.<sup>49)</sup>

이러한 해석의 문제에 관해서 필자는 전자의 입장에 동감한다. 그 이유는 예안리 I b기의 축조방법과 바닥형태의 구조가 수혈식석곽묘의 정형인 예안리 I c기 석곽묘와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즉 예안리 I b기의 석관계석곽묘는 11, 12, 31, 68호의 4기인데, 이 중 68호는 다른 3기와는 달리 평적기법이 많이 가미되었고, 바닥에 소형활석을 깬 것으로 보아 피장자의 매장시설인 관대시설이 설치되어있다. 그리고 유물 중 고배와 원저단경호는 연질과 고식도질체로서 예안리 I c기석곽묘에서 출토된 고식도질토기와 형식적으로 연결되고있기 때문에 김해 예안리 I b기의 석관계석곽묘는 수혈식석곽묘의 범주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sup>50)</sup>

따라서 낙동강하류역인 부산·김해지역의 묘제변화는 지배집단인 복천동고분군보다는 위계가 낮은집단인 예안리고분군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sup>51)</sup> 즉, 예안리고분군내에서 수혈식석곽묘 피장자에 이어 위계상 이보다 더 상위집단으로 볼 수 있는 화명동과 칠산동고분군, 그리고 가장 큰 지배집단인 복천동고분군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수혈식석곽묘가 축조된다. 이러한 묘제는 전통적이며 강한 보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제의 변화시점은 하나의 큰 변혁기로서 편년의 절대적인 분기가 될 수 있다.

### 3) 慶州地域 初期豎穴式石槨墓의 發生

그러면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발생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 중 부산·김해지역과 지리상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

49) 安在皓, 1990, 『앞의 논문』(주2)

50) 청동기시대의 석관묘는 積石技法이라는 개념보다는 매장주체부의 네벽을 판석 수매를 이용해 상자형으로 수적하는 기법이 일반적이다. 또한 수기의 적석된 청동기시대의 석곽묘는 벽석이 조잡하거나 불안정하게 돌을 채워 쌓은 것으로,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의 축조기법과는 석재의 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것에 비해 예안리 I b기의 석관계석곽묘는 하단석을 수적한 후 그 위에 다시 정형하게 평적하거나 장벽의 하단석부터 일정한 크기의 돌을 이용하여 적석해서 청동기시대의 석관묘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51) 김해 예안리고분군의 I b기 석관계석곽묘는 대부분 2m 미만의 소아용의 묘로서 다른지역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은 계층간의 차이도 있으나 수혈식석곽묘의 기술적인 차이로 간주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초기 예안리의 수혈식석곽묘가 석재를 대부분 수적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평적기법이 가미된 점에서 이 단계에는 아직까지 기술면에서 초보적인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다음단계인 예안리 1c기, 칠산동2기, 화명동5호에서 보다 안정된 평적기법의 숙련된 기술력을 습득하여 지배층집단의 복천동22호 주곽에서 대규모의 석축기술단계를 거쳐 연산동 8호분에서 가장 우수한 석축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석축기술의 단계별 발전상으로도 이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는 고분군은 경주 남부지역의 하삼정고분군이다.

아래 表 6은 경주지역 I기인 하삼정고분군 석곽묘 9호와 축조시기가 비슷한 김해 예안리 14, 27호, 칠산동 27호, 부산 화명동 5호와의 구조적 속성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속성		하삼정 9호						
		규모	평면형태	장축방향	축조방법	벽면모서리처리	바닥형태	유물부장형태
1기	화명동 5호			◎	◎	◎	◎	◎
	칠산동 27호			◎	◎			
	예안리 14호		◎					◎
	예안리 27호	◎			◎			◎

表 6. 慶州 및 釜山·金海地域과의 속성관계(◎ : 속성일치)

表 6에서 하삼정고분군 석곽묘9호와 속성일치가 많은 순서는 화명동 5호 칠산동 27호·예안리 27호 예안리 14호순으로 이중 화명동 5호분이 가장 많은 속성이 일치한다. 그러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평면형태에서 상이함으로 동일성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즉 초기의 수혈식석곽묘가 그대로 이어진 다음단계의 화명동이나 칠산동은 여전히 장방형을 고수하고 있고 하삼정고분군 역시 다음단계에도 대부분 세장방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해 예안리고분군<sup>52)</sup>의 경우 축조기법이나 바닥형태 등에서 화명동이나 칠산동, 하삼정 등과 많은 차이점이 관찰되므로 역시 동일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경주에서 낙동강하류역인 부산·김해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울산과 양산지역의 고분군 중에서는 아직까지 하삼정고분군 석곽9호보다 이른 시기나 동시기의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도 방증자료인 셈이다. 따라서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는 출현시기가 그보다 이른 부산·김해지역의 초기수혈식석곽묘의 구조가 전파되었다기보다는 이 시기, 내세사상의 관념이 증가하여 전대의 무덤에 대한 붕괴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더 견고한 재료인 석재의 도입이 요구되었고, 그 구조에 있어서는 지역적·기술적 차별성에 의해 자체적

52) 김해 예안리고분군의 Ib기인 석곽묘는 대부분 길이 2m미만의 소아용의 무덤으로서 다른 지역의 고분군에 비해 그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은 피장자의 신분이나 집단간의 위계에 의한 차이가 수혈식석곽묘의 축조기술상의 차이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축조기술상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예안리 Ib기는 석재를 대부분 수직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평적기법을 가미한 점에서 이 단계는 아직까지 축조기술면에서 초보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단계인 예안리 Ic기, 칠산동2기, 화명동 5호에서 보다 안정되고 정교한 평적기법의 숙련된 기술력을 습득하여 지배층집단의 복천동 22호 주곽에서 대규모의 석축기술단계를 거쳐 연산동 8호분 등에서 가장 우수한 석축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계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혈식석곽묘는 경주남부지역에서 발생하여 경주주변 지역의 각 지역집단으로 확산되어 5세기 후반 무렵에 지배층의 묘역인 경주중심지역으로 도입된다.

## Ⅵ. 맺음말

이 글에서는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신라 초기수혈식석곽묘의 발생 및 낙동강하류역인 부산·김해지역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에 연구된 신라토기의 단계별 특징을 중심으로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단계와 편년을 재검토함으로써 경주주변지역과 낙동강하류역의 신라토기 확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속성분석결과, 대체적으로 규모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커지고, 평면형태는 말각세장방형→세장방형·장방형→장방형으로의 변화상이 관찰되었다. 축조방법에서는 평적→평적+수적→평적으로 변화상이 관찰되었고, 바닥형태는 소형할석시상에 서 무시상으로의 변화, 유물부장형태는 단부장에서 양단부장으로의 변화상이 관찰되었다.

둘째,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발생에 관한 문제이다. 경주지역 Ia기인 하삼정고분군 I 석곽묘9호와 부산·김해지역 1기와의 속성관계비교에 의한 결과로서, 부산 화명동5호와의 유사성이 관찰되나, 평면형태와 규모 등에서 相異性이 간취된다. 따라서 경주지역의 초기수혈식석곽묘는 그 출현시기가 다소 이른 부산·김해지역의 초기수혈식석곽묘의 구조가 전파되었다기보다는 이 시기, 내세사상의 인식이 증가하여 전대의 무덤에 대한 붕괴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더 견고한 재료인 석재의 도입이 요구되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석재의 축조 기술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인정되지만 그 구조에 있어서는 지역적·기술적 차별성에 의해 자체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는 4세기 후반에 경주남부지역에서 발생하여 5세기 중반에 경주주변지역의 각 지역집단으로 확산되고, 5세기 후반에 지배층의 묘역인 경주중심지역으로 도입된다.

넷째, 부산·김해지역의 초기수혈식석곽묘는 김해 예안리 Ib기 석관계석곽묘를 축조방법상 수혈식석곽묘의 범주로 보아 계층이 가장 낮은 예안리의 수혈식석곽묘 집단이 제일 이른 시기에 묘제변화가 이루어지며, 다음으로 이보다 상위집단인 칠산동, 화명동고분군이, 지배층집단인 북천동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묘제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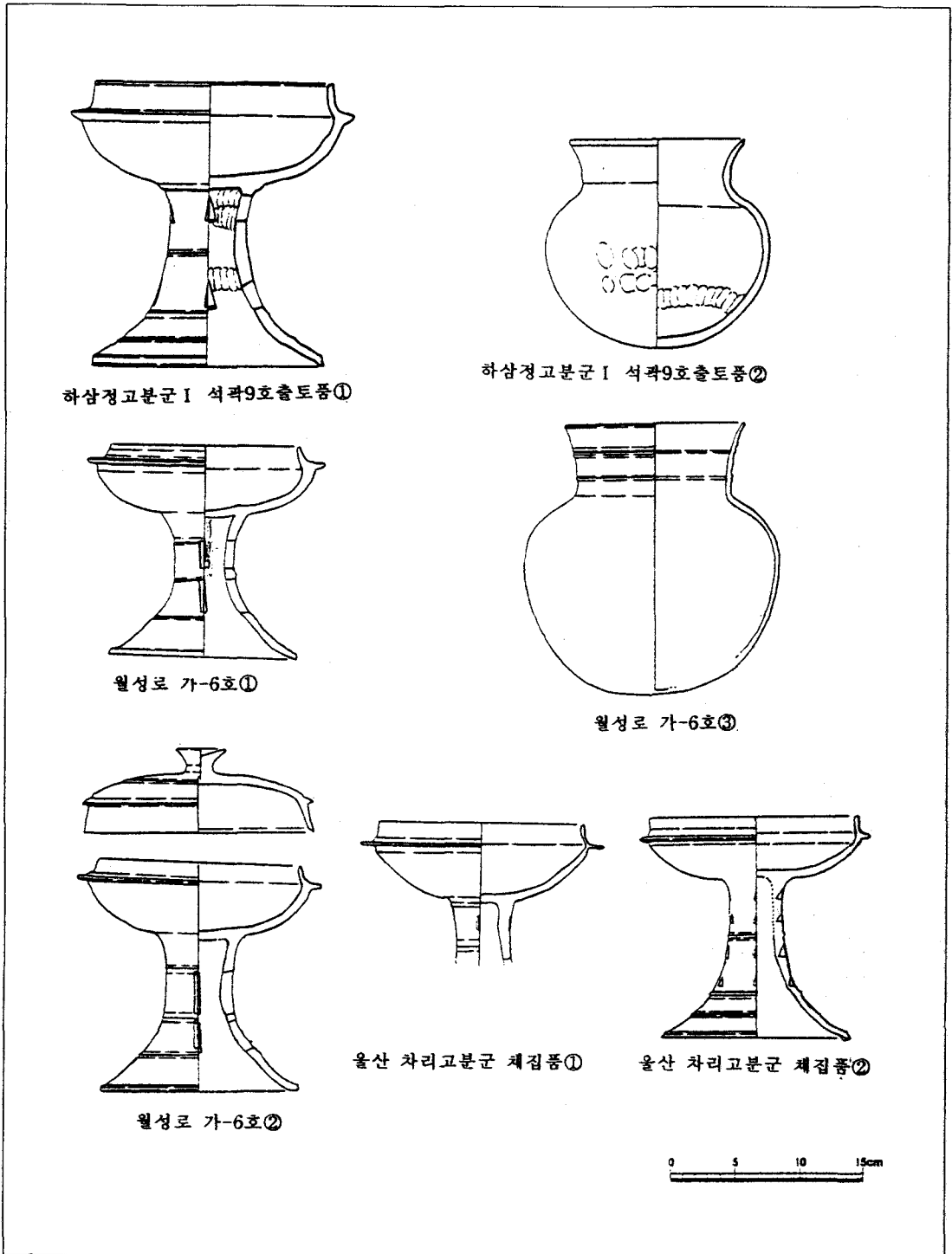
다섯째, 수혈식석곽묘의 신라토기부장에 관한 문제로서, 경주지역은 Ib기(5세기 전반후엽)에, 부산지역은 2기(5세기 전엽), 김해지역은 5세기 중엽에 부장되는 것으로 미루어 경주주변

지역의 수혈식석곽묘는 경주중심지역의 적석목곽묘보다는 약간 늦은 시기에 부장되고, 부산 지역은 경주주변지역의 수혈식석곽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장되며, 김해지역이 가장 늦은 시기에 부장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당시 경주로부터 부산·김해지역의 낙동강하류역으로 연결되는 신라토기문화의 확산과정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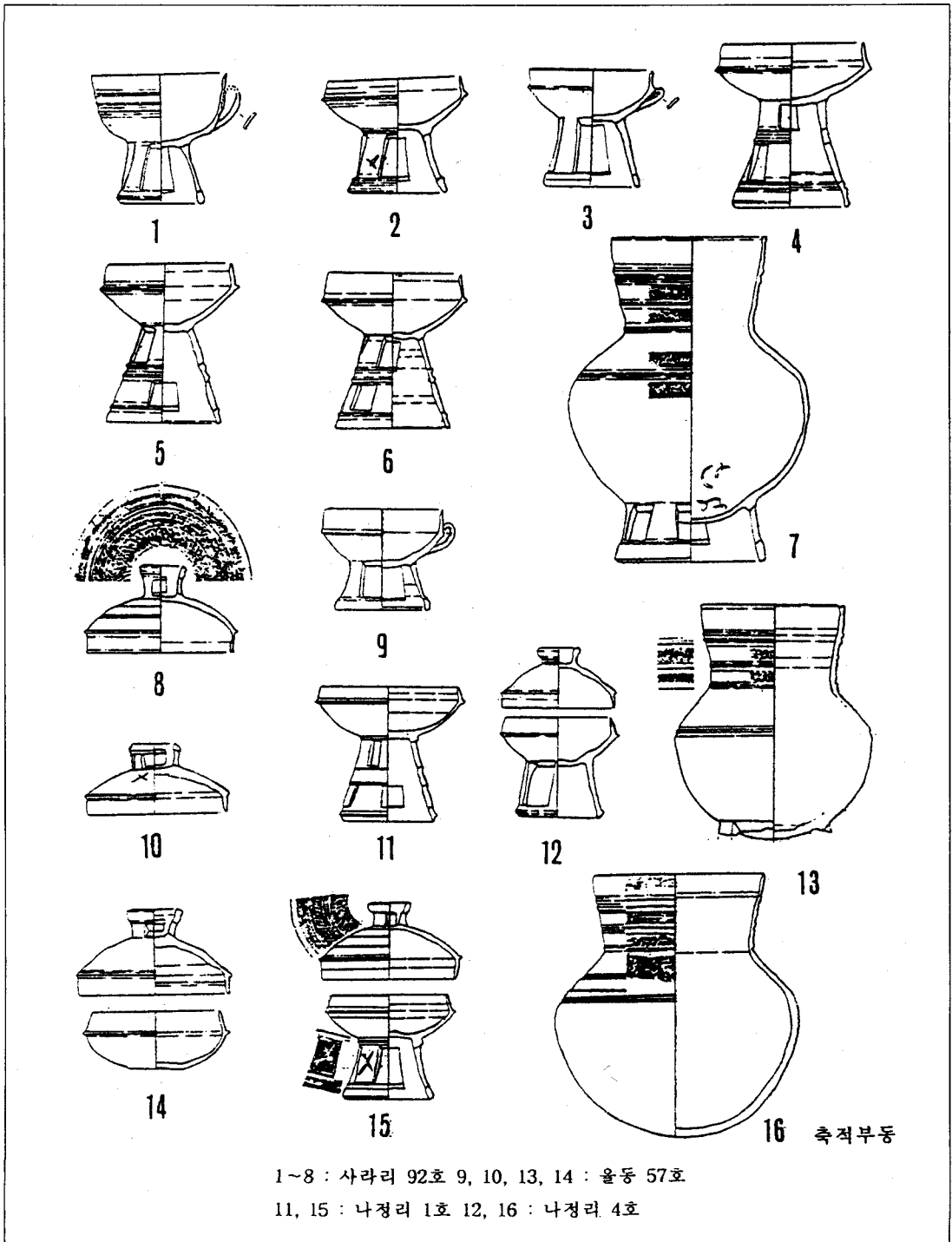
여섯째,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집단유형에 관한 문제로서, 부산·김해지역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경주지역은 규모와 입지조건으로 보아 평지나 저구릉에 형성된 小地域集團으로 생각된다. 두 지역 모두 小地域集團에서 수혈식석곽묘가 먼저 발생하며, 이보다 늦은 시기에 지배층집단에서 묘제변화가 이루어지는 점은 공통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이 글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맺음말로 대신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경주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존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필자가 오해한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수정·보완해 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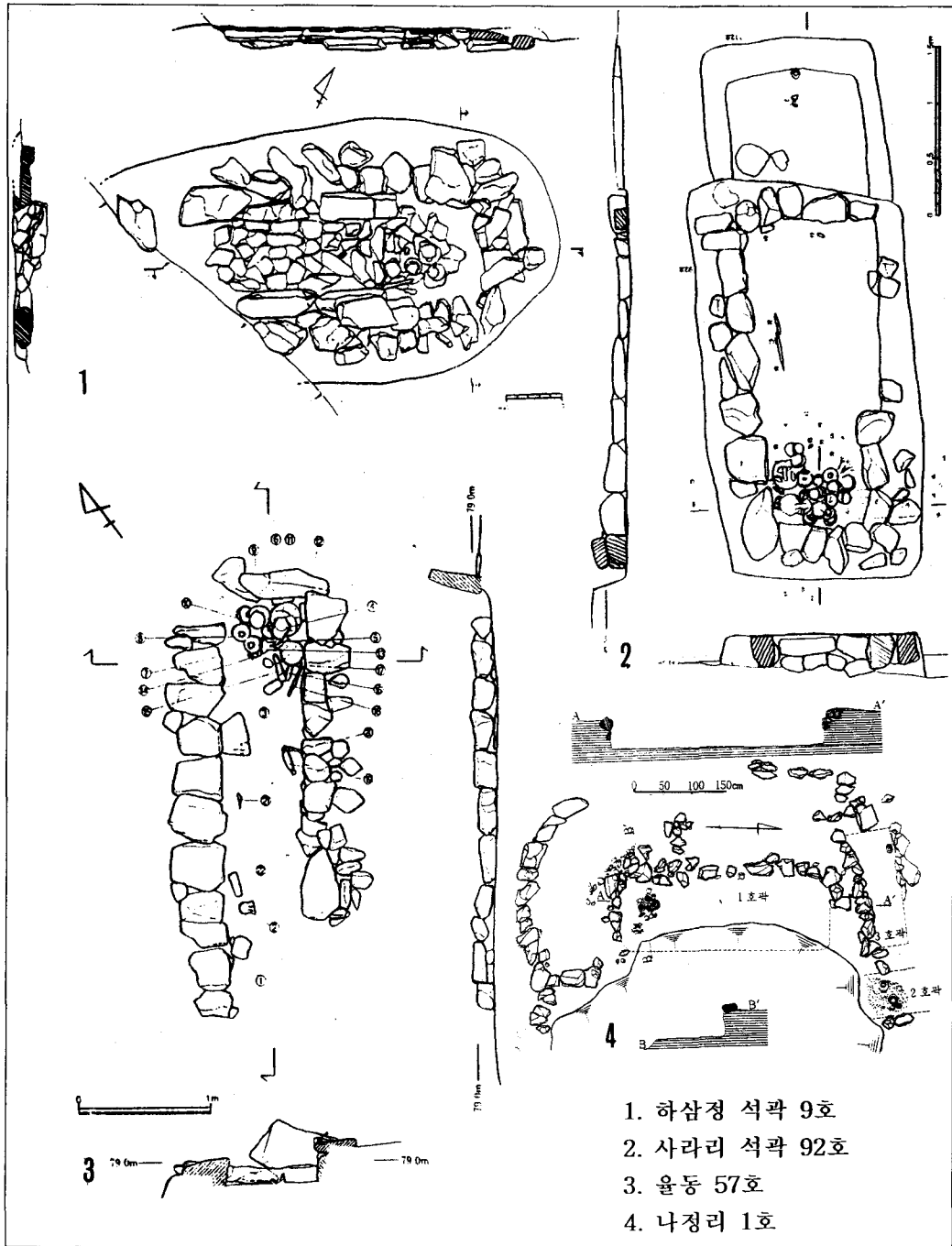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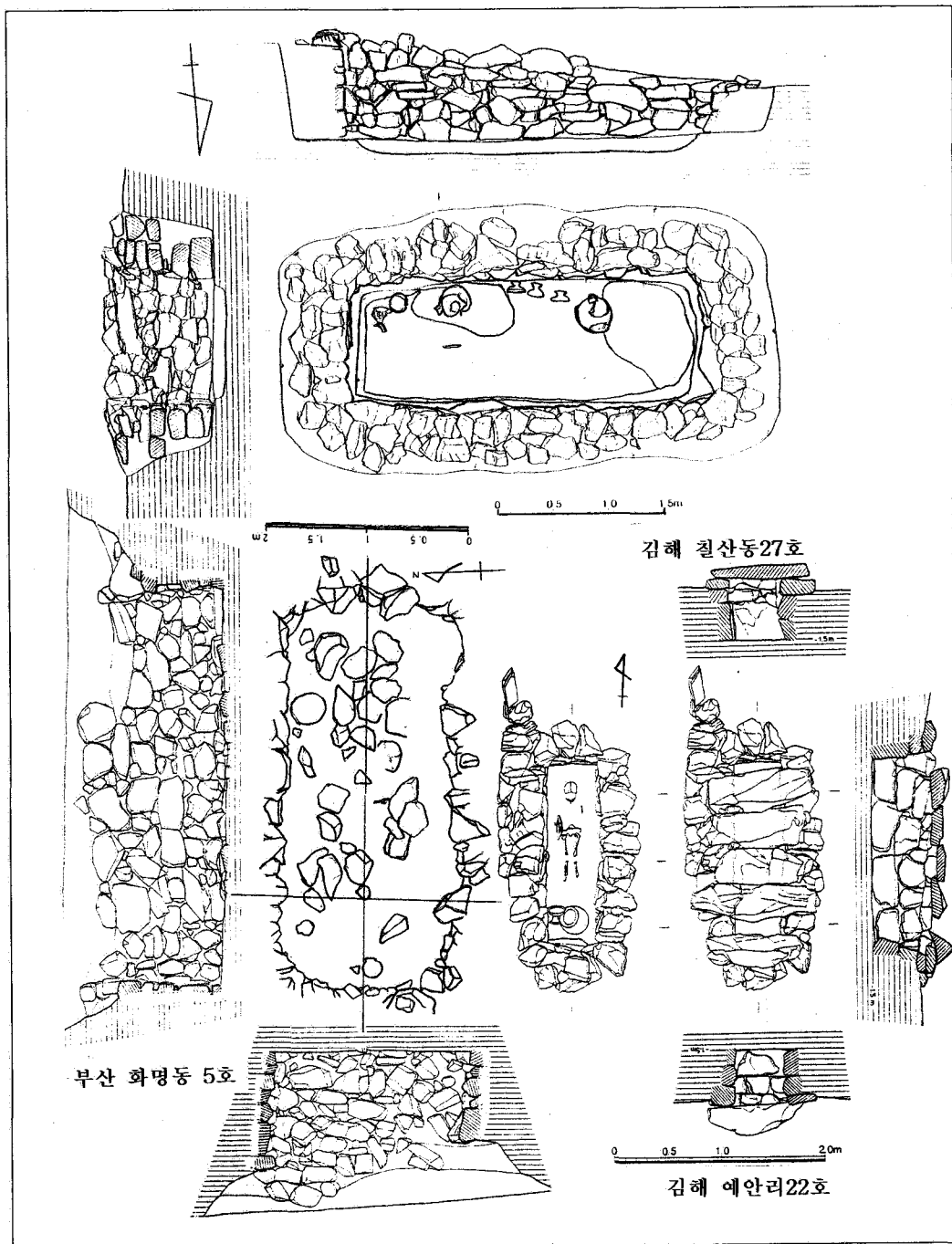
圖面 2. 慶州地域 初期豎穴式石槨墓 I期 遺物 및 比較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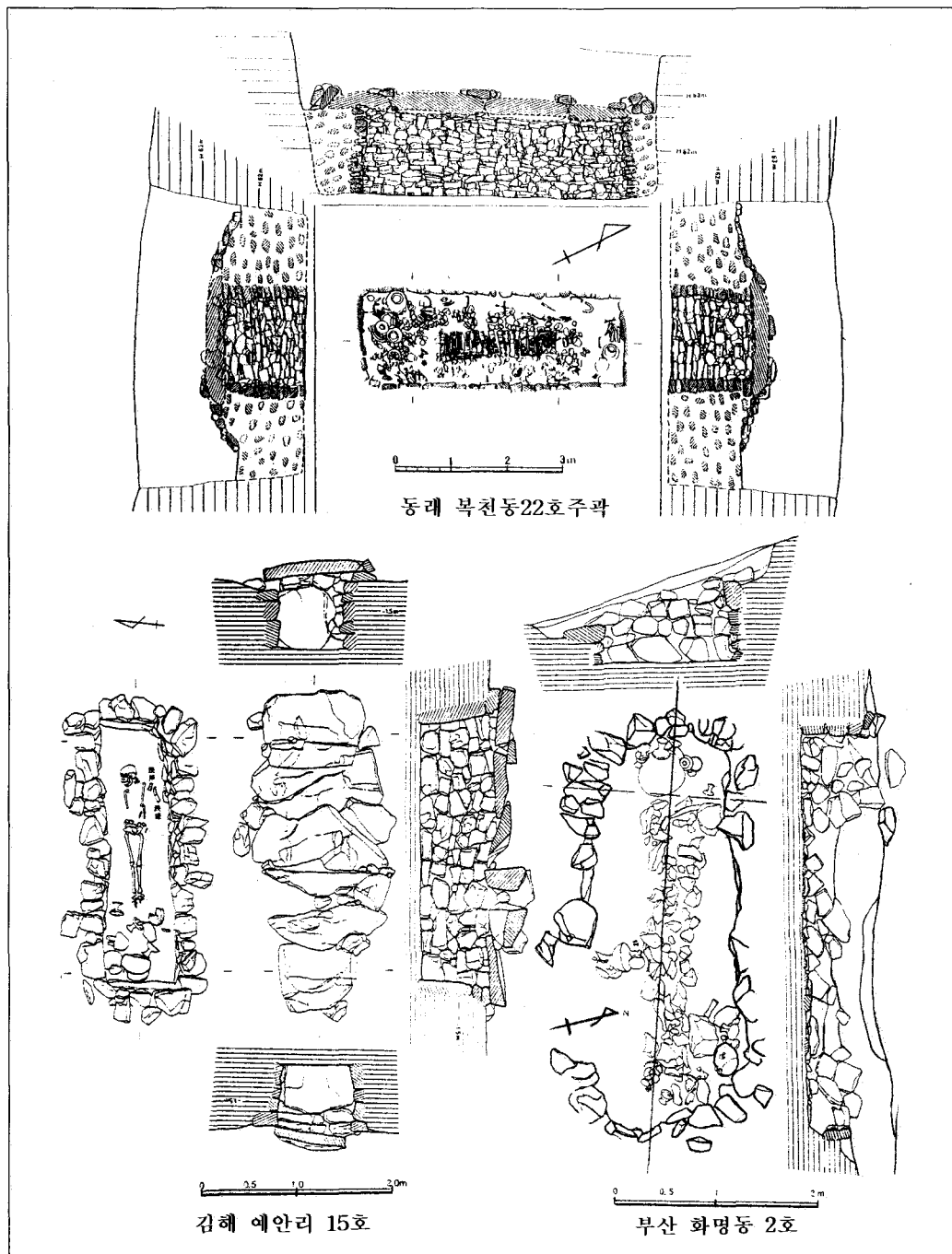
圖面 3. 慶州地域 初期竪穴式石槨墓 II期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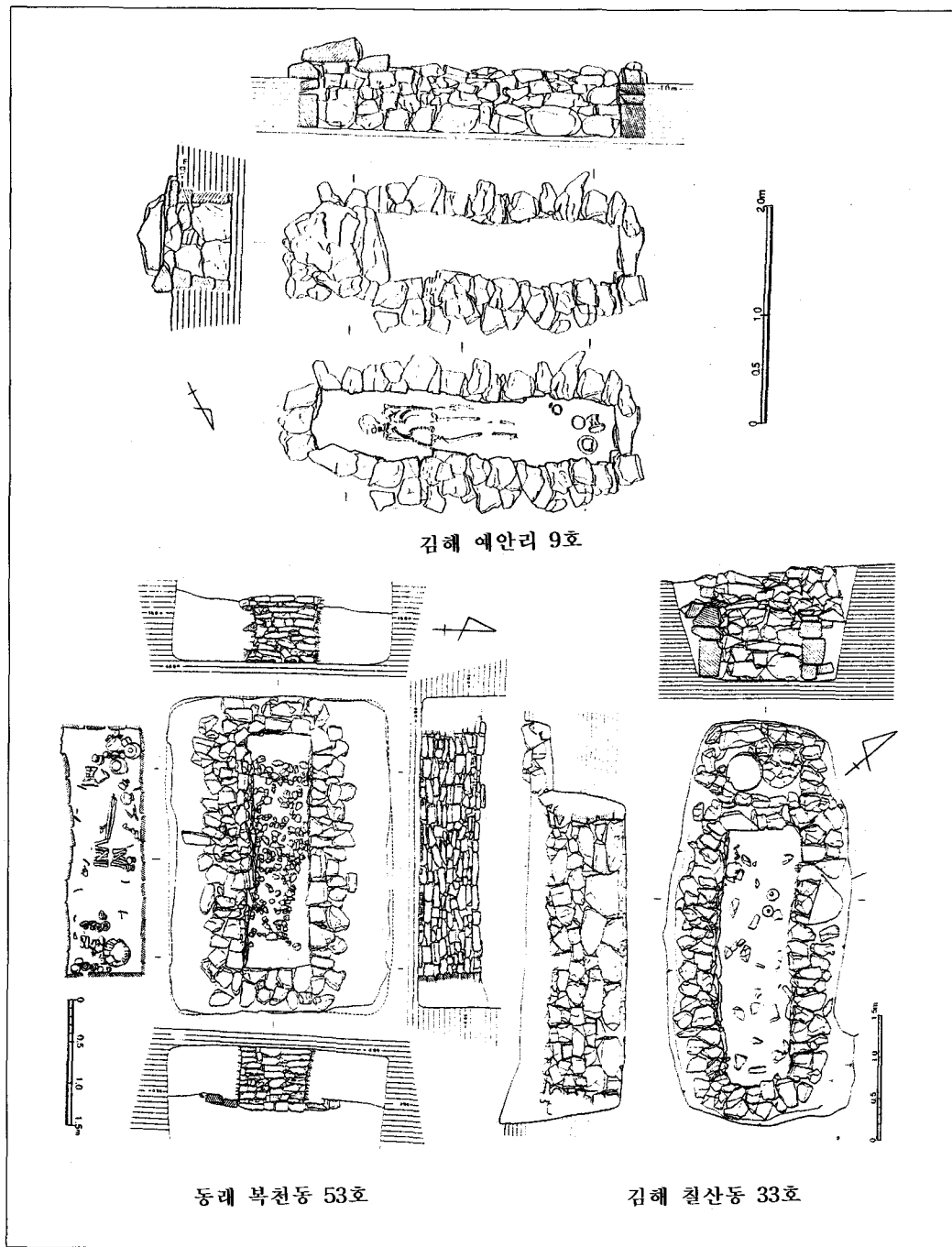
圖面 4. 慶州地域 初期竪穴式石槨墓 I, II期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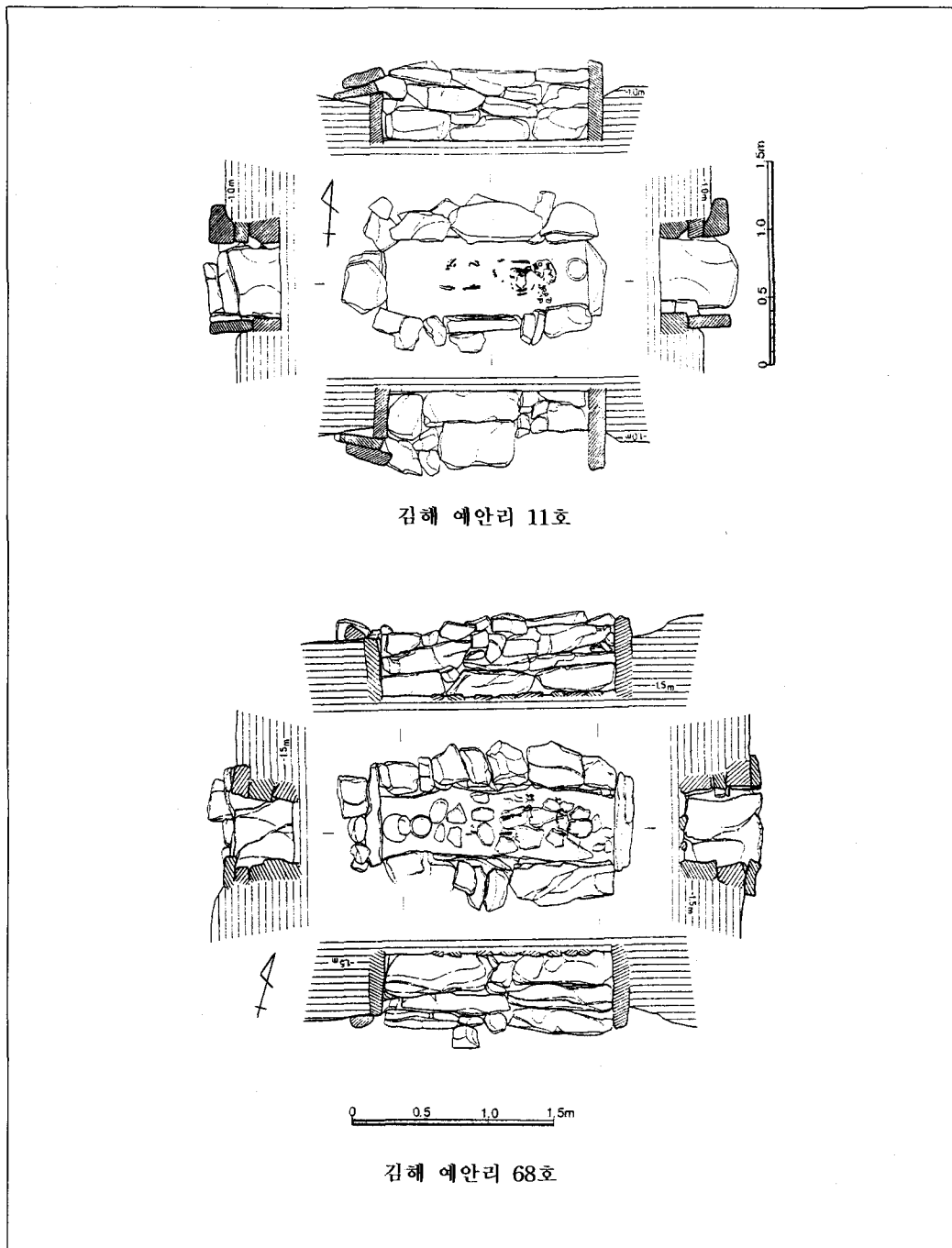
圖面 5. 釜山·金海地域 初期豎穴式石槨墓 1期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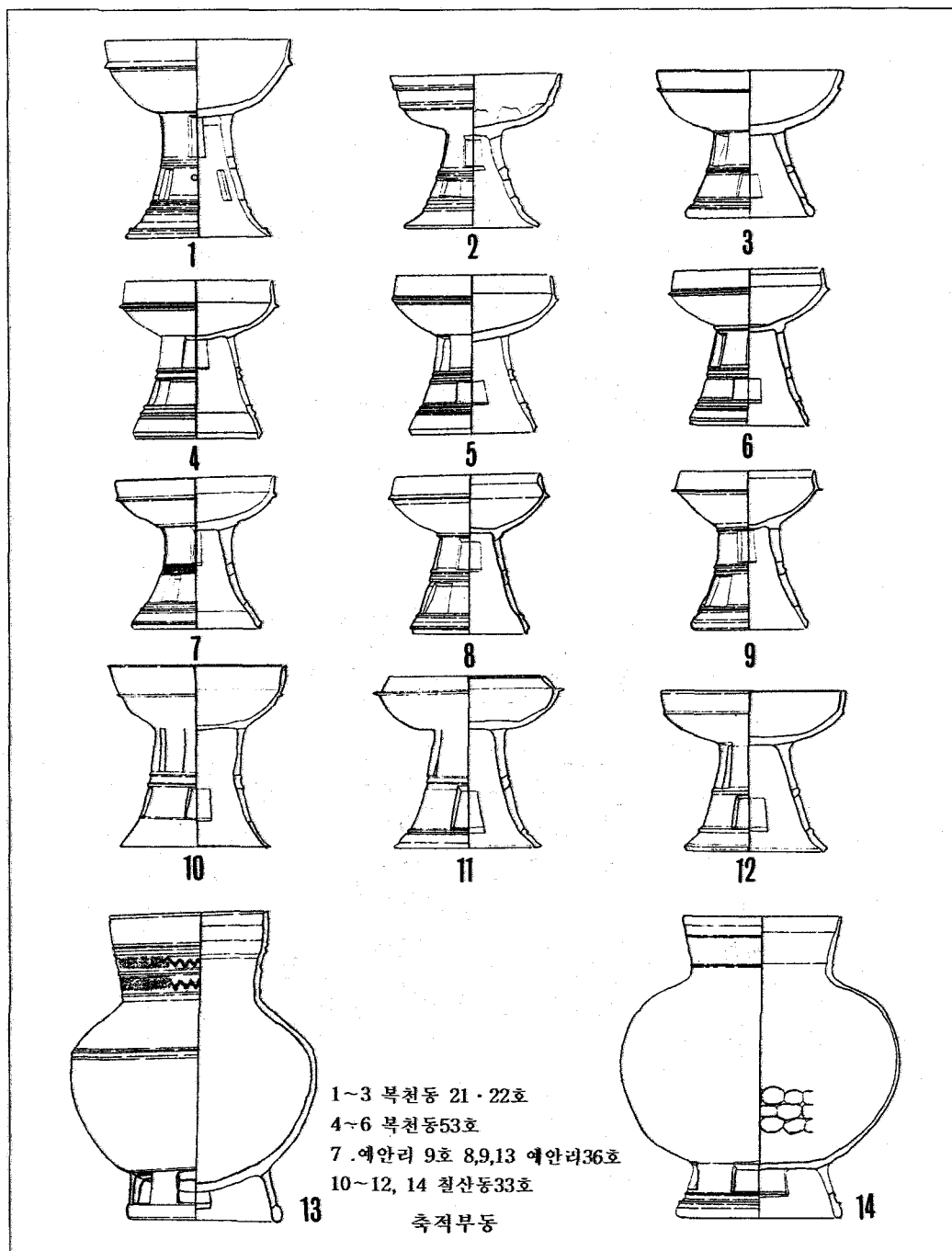
圖面 6. 釜山·金海地域 初期竪穴式石槨墓 2期 遺構



圖面 7. 釜山·金海地域 初期竪穴式石槨墓 3期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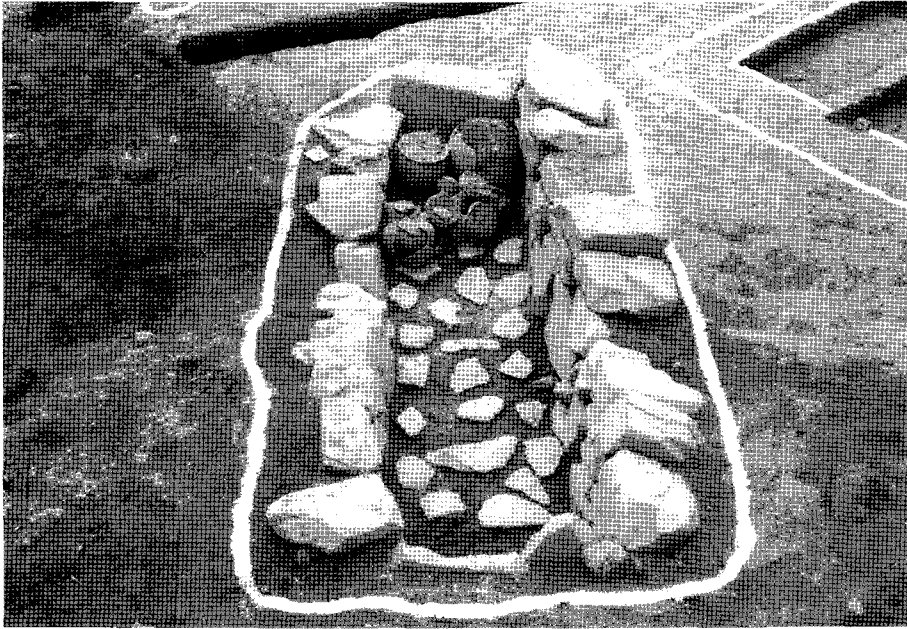


圖面 8. 金海 禮安里古墳群 Ib期 石棺系石槨墓



圖面 9. 釜山·金海地域 初期豎穴式石槨墓 出土 新羅土器





하삼정고분군 가-66호

寫眞 1. 慶州地域 初期竪穴式石槨墓Ⅰb期 遺構 및 遺物

〈참고문헌〉

1. 《報告書 및 報告文》「연대 순」

- 齊藤忠, 1937, 「慶州 皇南里百九號墳, 皇南里 第十四號墳 調査報告」 『1937古蹟調査報告』  
金宅圭, 李殷昌, 1986, 『皇南洞 第110號墳 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76, 『慶州 皇南洞 第 98號墳(南墳) 發掘調査報告書』  
釜山大學校博物館, 1979, 『釜山 華明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 1983, 1990, 1996, 『東來 福泉洞古墳群 I, II, III』  
尹容鎮, 1985, 『月城 羅亭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釜山大學校博物館, 1985·1993, 『金海 禮安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I, II』  
慶星大學校博物館, 1989, 『金海 七山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成均館大學校博物館, 1989, 『金海 退來里遺蹟- 나 地區古墳群-』  
慶北大學校博物館·慶州博物館, 1990, 『慶州 月城路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昌原文化財研究所, 1999, 『蔚山 早日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嶺南文化財研究院, 1999, 『慶州 舍羅里古墳群 I-積石木槨墓, 石槨墓- 發掘調査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慶州 栗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 2002, 『蔚山圈 上水道事業 大谷땀 敷地內 3次 및 4次 試·發掘調査 略 報告書』,

2. 《論考 및 論著》「연대순」

1) 國文

- 金世基, 1985, 「豎穴式墓制의 研究-伽倻地域을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17  
姜賢淑, 1989, 「伽倻 石槨墓 研究試論」 『韓國考古學報』 23.  
安在皓, 1990, 『東來 福泉洞古墳群 II 考察. 棺·槨에 대하여』 釜山大學校博物館.  
—————, 1997, 「福泉洞古墳群의 編年」 『伽倻史 復元을 위한 福泉洞古墳群의 再照明』 제2회 釜山市立福泉博物館 學術發表大會  
洪漣植, 1990, 『東來 福泉洞古墳群 II. 考察-福泉洞古墳群의 豎穴式石槨墓-』 釜山大學校博物館  
—————, 1994, 「豎穴式石槨墓의 型式分類와 編年」 제3회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申敬澈, 1993, 「洛東江 東岸樣式土器의 諸問題」 『제2회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申敬澈, 1994, 「新羅土器의 發生에 대하여」 『韓·日 古代文化의 連繫』 서울프레스.  
崔鍾圭, 1995, 『三韓考古學研究』 書景社  
李熙濬, 1995, 「慶州 皇南大塚의 年代」 『嶺南考古學報』 17.

- , 1997, 「土器에 의한 新羅古墳의 分期와 編年」 『韓國考古學報』 36.
- , 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高久建二, 1995, 『樂浪古墳文化研究』 學研文化社
- 李盛周, 1996, 「新羅式 木槨墓의 展開와 意義」 『新羅考古學的 諸問題』 韓國考古學會.
- , 1999, 『新羅·伽倻社會의 起源과 成長』 學研文化社
- 李鍾宣, 1996, 「皇南大塚雙墳」 『新羅考古學的 諸問題』 韓國考古學會
- , 1997, 「皇南大塚雙墳의 深層研究」 『韓國上古史學報』 25.
- 金龍星, 1996,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地域 古墳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35.
- , 1999,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學研文化社
- 鄭相石, 1999, 「竪穴式石槨墓의 構築工程-雨水里 石槨墓를 中心으로-」 慶南考古學研究所.
- 張正男, 2000, 「慶州地域 石槨墓 樣相과 性格研究」 『慶州文化』 6 경주문화원
- , 2000, 「陝川과 慶州地域 石槨墓 樣相研究」, 『韓國古代史와 考古學-학산 김정학박사 기념논총』
- 曹秀鉉, 2002, 「해양교류의 고고학 -蔚山 下三政古墳群 I 發掘調査 概報-」 『제26회 韓國考古學 全國大會 發表要旨』 韓國考古學會.
- , 2003, 『慶州地域 竪穴式石槨墓에 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 日文.

- 藤井和夫, 1979, 「慶州 古新羅古墳 編年試案-出土新羅土器를 中心へ」 『神奈川考古』 第6號
- 申敬撤, 1992, 「四·五世紀代の 金官伽倻의 實像」 『巨大古墳と伽倻文化 “空白”의 四世紀·五世紀를 探る』 角川選書.
- 安在皓, 2000, 「慶州地域의 初期新羅土器의 檢討」 『綜合研究所報』 第240号, 福岡大學綜合研究所.
- 定林秀夫, 2002, 「陶質土器의 起源に 關する 一考察」 『韓半島考古學論集-西谷正』 ずざさわ書店

## A Study on the Early Stone-lined tombs in Gyeongju Area

Cho, Su-Hyun

It is this theory that examines and compares the early stone-lined tombs at Busan and Kimhae area in the downstream of Nakdong river about a type of group building these, an age burying the Shilla's earthenwares, a structural characteristic and origination etc., focusing Gyeongju Area. In conclusion the early stone-lined tombs were accepted more formerly of the low ranking group than the ruling class but the burying the Shilla's earthenwares were opposed to that. The earliest No.9 stone-lined tomb in the Hoasamjeon in Gyeongju area has a tradition of the former wooden-chamber tomb similarly at Busan and Kimhae area in the downstream of Nakdong river. But after comparing the structural attribute of two regions, it is different in the plane form. Therefore I think that the early stone-lined tombs in Gyeongju area were reflected in the life after death better than these were transmitted from the downstream of Nakdong river and these were originated locally and inside from the technical development and the recognition that the hard stone material was more useful than the weak timber.

[Key Word] Stone tomb, Gyeongju, Nakdong river, Hoasamjeon, Group